

민정책을 경계한다

정치

I. 머리말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국제정치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하면서 정치 대국 노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 새 내각 출범을 계기로 개헌논의가 정치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일본본회의의 수정과 조정을 볼 수 있다. 현직인 연정 주류 세력은 국내정치 분야에서는 계속 권력을 쥐고 있지만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보수적이고 국가이익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8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은 추축국에서도 중국과 어깨를 겨룬다. 냉전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정치대국화 추진은 이 지역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한 국입장에서 일본은 대외정책 변화가 지난 의미를 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 하타내각의 출범

하타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지난날 25일 정식 출범했다. 하타내각은 일본의 제2차대전 패전 후 혼란기에 있었던 4차대소수정권에 이어 무려 39년만에 최초의 소수연립 내정이다. 하타내각에 참가하고 있는 정당들은 중의권 총 5백11석중

182석에 불과한 반면 자민당은 2백64석에 이르는 여당에서 이탈한 사회당은 74석이다. 결국 제1, 2당인 자민당과 사회당이 정권에서 배제된 채 제3당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셈이다.

하타 연정의 향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 대표로서는 지난날 자민당내 주도권 경쟁에서 패한 뒤 탈당을 감행했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을 지기 위해선 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오자와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이른바 '집단의 자위권'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자와의 존재를 현 연정 반대이유로 내걸고 있는 사회당과 자민당은 오자와

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권 리더쉽의 형태에 관한 논쟁은 강력히 리더쉽의 추구 여부에 관한 것이다. 지난날까지도 해로 일본은 주요 정당들은 이같은 논쟁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일본은 국가자원의 존재에 국민적 합의를 보여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된 사회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적 합의는 신중하고 안전한 전후 정치 균형상태에 의존하고 있었다. 50년대와 60년대 초 격렬한 정치투쟁 끝에 이뤄진 이 균형상태는 정당들

현 연정의 정치대국화 주장은 지난 30여년간 터부시와 같았으나 이제 점차 사회 거변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국제주의의 기치아래 이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2차대전의 전쟁만 원인이 다른 열강들로부터의 고립된 상황에서 탈피하려 한 데 있었다는 것이

있다. 또한 구미가 히로시마 방상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명분을 들어 자위대 병을 시사했다. 긴급법안은 일본이나 일본국인이 국제법정에 개입했을 경우 일본의 해외와 병에 대한 자위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폐전은 군사력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권력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그후 강력한 정치인이 국가정책 통제력을 장악하는데 따른 두려움도 심화됐다. 이 때문에 일본정치인들은 권위집단의 권한에 도전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오자와는 어떤 정치인도 군부를 억제한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2차대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민첩하고도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오자와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원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이것을 '파시즘의 부활'로 보고 있다.

IV. 맺음말

유럽에서는 봉건영주에 대한 충성심이 합리주의에 자리를 넘겨주면서 중세가 막을 내렸다. 유럽에서 합리주의의 승리는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이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반면 일본의 근대화는 이와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일본은 봉건사회가 계속 유지되다가 19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근대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널리 도입되고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의 도입은 뒤로 미뤄졌다. 그결과 일본은 지금 산업대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방의 시각이다. 일본의

특집 마당

남·북한 군사력



한국	북한
육군 54만 6천 6백 명	육군 90만 100명
해군 6만 5천 명	해군 46만 4천 명
항공 11만 5천 명	항공 84만 7천 명
11	37
503	53
21	99
1,800	3,800
1,900	2,500
4,500	10,300
190	310
60	310
1	26
520	650
450	480
600	250

*①: 평壤별 보포함, 해군에 해방
*②: 육군에 해방별 보포함
*③: 해방별 보포함
*자료: '93. 9. 4 국방부에서
국방: 1994. 5. 25일 현재
국군: 25만 5천 5백명
해군: 4만 5천 5백명
항공: 5만 5천 5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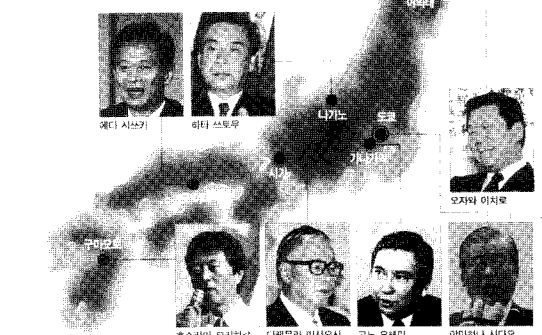
日, 대외정책 변화

다. 그후 '비자민'을 구호로 내건 호소카와 모리토후미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비자민연정은 정권교섭을 둘러싼 갈등으로 붕괴되고 사회당, 신당 사카기케등이 연정에서 이탈한 뒤 신생당, 중생당 주도하에 하타내각이 탄생한 것이다.

하타가 소속된 신생당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한 행사를 수락 함에 적극 동참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오자와를 축으로 하는 하타정권의 이같은 행동주의적 대외정책의 핵심은 세계 제2차대전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보수'노선으로 불리는 연정의 새 정책은 오자와의 입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계 지식인층의 내부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그는 '정치개혁을 계속 추진하라'며 리더쉽의 무제라는 일본정치체제의 근본적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며 권위적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즉 강력한 정부수립을 통해 자민당 장기집권시절 리더십 결여를 불식시키자는 것이 오자와의 지론이다.

오자와는 이제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정치대국이 돼야 하며 다른 보통의 국가들처럼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5월 출판된 저서 '일본 개조계획'에서 밝힌 그의 정치이념인 '보통국가론'이다. 이는 2차대전때 패전시기에 걸쳐 미국의 외교-안보 우산 아래 있던 일본의 입장에서 볼때 매우 급진적인 이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전후 최약체 하타정권, 야당 손아귀에 있다" '현 정권의 불안이 정치개조의 한부분'이란 시각도

III. 현행헌법과 정치적 리더쉽 문제

일본의 새 정치질서는 2차대전의 패전과 결과에 관한 오래된 논쟁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현행 평화헌법과 정치적 리더쉽의 형태라는 두가지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적 사용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평화헌법은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일본의 군사력사용을 부인하고 있

간 이념적 차이를 수면하에 잠재워 왔다. 그러나 부정적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그러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자민당의 현 지도부와 사회당, 신당 사카기케등은 기존의 평화주의 혹은 반전론을 선포하고 있다. 이들은 군사분쟁이 일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2차대전의 교훈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극히 제한해 있으며 따라서 다국적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다. 오자와 등은 경제대국 일본이 평화 유지를 중 참여에 적극적인 경우 보다 시 이같은 고립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자와 전역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속이 중폭되자 이를 자위대의 유엔 기치아래 해외파병 준비를 해야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키자와 고지신인인상은 취임 직후 만일 북한 핵문제에 실마리를 붙지 못해 유엔의 평화한 제재조치가 개시될 경우 평화헌법 재해석을 통해 해상자위대가 이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바

신보수노선은 정치대국화를 통해 서방의 이러한 일본관을 불식시키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권변경자들은 '전후 최약체정권인 하타정권의 생명유지 정치가 야당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언제든 이를 뽑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키자와 고지신인인상은 취임 직후 만일 북한 핵문제에 실마리를 붙지 못해 유엔의 평화한 제재조치가 개시될 경우 평화헌법 재해석을 통해 해상자위대가 이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바

한국	북한
1. 군사력	1. 군사력
2. 경제력	2. 경제력
3. 과학력	3. 과학력
4. 문화력	4. 문화력
5. 외교력	5. 외교력
6. 기타	6. 기타

SINCE 1961

시사영어학원의 강의는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시사영어학원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매혹터였던 '외국'의 시사영어학원은 세보출, 세시선로 세콤에 태어나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이 되었습니다.

TOEIC TOEFL L.C AFKN News & Drama 청취반 미국어 HEARING TIME: 한국관광기차반 영작반 영어회화 반인 미인 WRITING SEMINAR 영어번역 독해 회화 일본어 듣어시합대입반 일본문화 라이더클럽 독해 회화 TOEFL 영어듣기 Korea Herald기차반 VOCAB 22000 카토 VOCAB 성문종합영어 기본영어 MAN TO MAN기차반 TOEFL GMAT GRE GMAT M A ENGLISH 대외통번역 동국대학교출판부

주말특별반

대표 734-2442 종로2가 종로서적 뒤